교원안심서비스 시범학교 운영

교원 휴대전화 번호 학생·보호자에 '비공개', 교육활동 보호 녹음기 설치 등

도교육청, 도내 27개 학교 선정 2학기부터… 규모 따라 200만원 이내 예산 지원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3년 교원안심서비스 시범학교 운영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교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학생 및 보호자에게 공개하지 않고 통화 및 문자 송·수신 등의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녹음기 설치 등을 통칭한다.

이를 위해 전북교육청은 지난 6월 20~23일까지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희망 신청을 받아이중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이 많은 학교와 학생 수가 많은 학교를 중심으로 27개교를 선정, 2학기부터 운영된다.

특히 시범운영 선정학교에는 학교 규모에 따라 200만원 이내의 예산이 지원된다.

학교별로 구성원 합의를 거쳐 업체 선정 및 계약을 통해 안심번호를 발급하거나 녹음기를 설치하면 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 최초로 시행되는 교원안심서비스가 교육활동 침해 및 사생활 노출로 인한 교원의 피로감을 감소시키고,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시범운영 결과와 현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에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확대 운영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오픈캠퍼스 통합 운영 '호평'

전북대,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최우수' 선정

올해 오픈캠퍼스 '혁신도시캠퍼스' 10~28일 운영

전북대학교 전경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최우수 컨소시엄에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부터 3년 연속이다.

이날 전북대에 따르면 대학과 지역 이전기관 간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오픈캠퍼스를 통합 운영해 분야 간 융합교육을 고안했다. 특히 대학과 지자체, 공공기관, 산업계 등 전북지역 23개 기관을 아우르는 플랫폼을 구성해 공동 교과과정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이를 통해 지역 대학생들의 전공 및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취업률 또한 향상시켜 참여 학생들의 지역 정주를 유인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올해 지역기관을 아우르는 플랫폼 구성으로 만들어진 오픈캠퍼스인 혁신도시캠퍼스가 10~28일 운영된다. 전북대 등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참여 5개 대학과 국민연금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농업기술진흥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이 지역 전략 산업인 농생명과 연기금, 국토정보 분야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홈페이지(https://jbcluster. jbnu.ac.kr/)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오픈캠퍼스에서는 전북 이전 공공기관의 직무 및 주요 사업 분야 채용 설명회와 취업 특강, 관련 분야 견학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에도 전북 이전기관과 연계해 해당 기관에 취업을 원하는 지역 학생들에게 전문자격 교육을 비롯해 멘토링, NCS 준비, 면접교육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은 교육부의 사업 선정을 통해 국비와 전북도,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완주군 등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 전북 이전 공공기관 관련 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등을 추진한다.

/장은성 기자

원광대 LINC 3.0 사업단 '상반기 가족회사 페스티벌'

원광대학교(총장 박성태) LINC 3.0 사업단은 원광대 가족회사 및 사업단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상반기 LINC 3.0 가족회사 Festival'을 지난달 29일 교내 WM관 컨벤션홀에서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상반기 가족회사 Festival은 기업과 대학 간 상호교류를 통해 산학연 협력 활동을 확대해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신산업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기업협업지원센터 사업소개 및 기업지원계획 공유와 더불어 한국평가데이터 박종현 수석전문위원의 '중소기업을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사업화 방안'을 주제로 특강이 펼쳐졌다.

특히 가족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성태 기획처장의 글로컬대학30 추진 전략 설명과 함께 글로컬대학30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도 이루어졌다.

또한, 신규로 가입한 가족회사에 각각 현판이 전달됐으며,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및 All-Set 사업 참여 교수와 참여 기업 간 간담회가 이어졌다.

LINC 3.0 사업단장인 조영삼 교수는 "이번 가족회사 Festival을 통해 대학 구성원들이 가족회사와 산업체 수요를 기반으로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함께 성장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원광대 가족회사는 2023년 6월 현재 총 3,173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대학과 산학공동 기술개발 과제, All-Set 사업 등 다양한 산학연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도교육청은 3~4일 이틀간 순창 쉴랜드에서 지방공무원 노동조합 임원과 업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2023년 지방공무원 노사워크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3일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는 모습이다.

'동행·상생' 건전한 노사문화 조성 위해

도교육청, 지방공무원 4개 노조 임원 대상 노사워크숍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3~4일 이틀간 순창 쉴랜드에서 지방공무원 노동조합 임원과 업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2023년 지방공무원 노사워크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전북교육청 4개 지방공무원 노동조합(한공노, 통합노조, 교공노, 전공노)이 처음으로 모여 노-노 간 협력을 강화하고, 노-사 간 현안을 공유해 동행과 상생의 건전한 노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단체교섭이론과 협상전략 △공무원 노사관계 사례 연구 특강 △청렴교육 등으로, 업무 스트레스 및 근무 환경에 따른 피로감 해소를 돕기 위해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도 제공됐다.

특히 서거석 교육감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전북교육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지방공무원 노동조합 임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서 교육감은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해 지방공무원 4개 노동조합이 처음으로 함께 한 뜻깊은 자리"라면서 "비행기가 엄청난 에너지로 이륙하듯, 전북교육 구성원들이 전북교육이라는 거함의 대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앞으로 소통과 협력을 통한 노사문화를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리드믹휴먼케어아카데미 신입생 환영회가 지난 1일 진수당 바오로홀에서 열렸다.

전북대 리드믹휴먼케어 아카데미 신입생 환영회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리드믹휴먼케어아카데미(센터장 엄희정) 신입생 환영회가 지난 1일 진수당 바오로홀에서 열렸다.

이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신입생과 학부모 50여 명이 참석해 박용근 자문위원장(전북도의원)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내빈들의 축사와 격려사가 이어졌다.

이후 교수진 소개와 교육 일정 안내에 이어 신입생 소개와 프로그램 중 일부인 심리테스트가 진행됐다.

한편, 신입생들은 오는 12월까지 매주 토요일 전북대학교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교육과 심리·체형 테스트, 국제여름캠프, 전시, 공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북도교육청의 지원으로 전액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특히 독일, 오스트리아, 중국 대학 교수진의 특강과 교육과정을 총괄하는 전북대의 엄희정 교수와 한옥건축공학과 남해경 교수, 바이오메티컬공학부 권대규 교수, 심리학과 한현석 교수 및 총 40여 명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학생들의 멘토 역할을 담당한다.

엄희정 센터장은 "일상 가까이에 있는 소리와 움직임을 기반으로 한 문화·예체능·건강치유·기술 융합교육 참여로 유연하고 창의적인 글로컬 문화인재 양성과 소통과 공감 능력 향상을 통한 건강한 사회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상반기 중 진행 미래교육 정책연구 결과 공유

전북교육정책연구소, 오늘 연구보고서 발표회

에듀테크 기반 교육환경 구축 방안 연구 등 3건

전북교육정책연구소는 4일 전주평화의전당에서 '2023 상반기 연구보고서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회는 상반기 진행된 미래교육 정책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연구과제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함이다. 각급 학교 교직원을 비롯해 교육전문직원, 일반직 등 사전 신청한 200여 명이 참여한다.

이날 발표되는 연구과제는 에듀테크 기반 교육환경 구축 방안(연구위원 양경화), 교장공모제의 효과성 분석(연구위원 이순아), 지역과 상생하는 원도심학교 시설 활용 방안(연구위원 김정훈) 등 3건이다.

먼저 양경화 위원은 '에듀테크 기반 교육환경 구축 방안 연구'를 통해 도내 교육현장의 스마트기기 활용실태와 스마트기기 활용 수업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다.

이어 이순아 위원은 도내 72교에서 운영되는 교장공모제에 대해 교원들이 어떻게 인식하는지, 교장공모제가 운영 취지에 맞게 학교 경영 효과로 이어지는지 등을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김정훈 연구위원은 '지역과 상생하는 원도심학교 시설 활용 방안'을 주제로 원도심학교 유휴시설을 학생과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미래교육연구원 장익 원장은 "이번 발표회는 전북미래교육 정책연구 결과를 교육구성원들과 공유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를 적극 반영해 교육정책 수립과, 학교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군산대, 올 상반기 지역사회 심리전문기관 체계구축 간담회

국립군산대학교 학생상담센터는 지난달 30일 '2023년 상반기 지역사회 심리전문기관 체계구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군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군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전북스마트쉼센터, 전북청년마음건강센터, 와우임신상담지원센터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간담회는 지역청년 및 재학생들의 자살·임신문제·알코올의존·스마트폰의존·도박문제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위기발생 시 기관 간 유기적인 상담 및 복지체계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하반기에는 지역사회 심리전문기관들이 함께하는 행복온도 올리기 캠페인과 자살, 도박, 스마트폰의존 예방을 위한 오프라인 예방교육을 실시하기로 했고, 앞으로 위기발생 시 긴급 사례회의를 실시해 사례 맞춤형 상담·복지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전북지역 대학생 연합 창업 캠프 성료

전주대학교 창업교육센터는 도내 8개 대학 연합 1박 2일 창업 캠프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창업에 관심이 있는 전북권 대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9~30일 진행된 이번 캠프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따른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을 인지하고,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창업 아이디어 발굴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주대, 군산대, 전북대, 우석대, 원광대, 전주비전대, 한국농수산대, 예수대 등 전북지역 8개 대학 연합과 ㈜굿컴퍼니, 익산 청년 시청이 함께한 이번 행사는 지역 인구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 청년 지원 정책과 취·창업 문화, 복지 등의 지원사업을 함께 알아보는 특강을 마련, 익산 청년 시청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 및 스튜디오를 탐방하는 시간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전주대 신정하(스마트미디어학과) 학생이 '시니어 스트리밍 플랫폼' 아이템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캠프에 참여한 전주대 나우성 학생(부동산국토정보학과 2년)은 "막연하게 갖고 있던 인구 감소 문제 아이디어들을 이번 캠프를 통해 실질적으로 구현할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8개 대학의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의견을 공유해 보고 구체화 해 볼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새롭고 의미 있었다"고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이공학 우수인재 양성… '오디세우스' 교육생 모집

전북대 이공학영재교육원 21일까지 12개 학문 분야

전북대학교 이공학영재교육원은 지역의 이공학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오디세우스 프로그램을 마련, 이에 참여할 제12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전북대 이공학영재교육원은 전라북도교육감 승인을 받은 영재교육기관으로, 2012년부터 지역 우수 청소년들에게 이공학 분야 연구활동과 맞춤형 체험 교육을 제공해 이들을 지역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인재로 육성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에 고분자·나노공학을 비롯해 기계공학, 농생명학, 바이오메디컬공학, 반도체공학, 분자생물학, 소프트웨어공학, 전기전자공학, 지구환경과학, 항공우주공학, 화학, 화학공학 등 모두 12개 분야의 교육생을 모집한다.

대상은 전북 지역 고교 1학년 학생들로, 1차 서류 심사와 2차 지도교수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모집기간은 오는 21일까지며, 전북대 청소년 창의기술인재센터 블로그(https://blog.naver.com/tstarjbnu) 공지사항에 첨부된 양식을 다운받아 각 학교 교사들을 통해 전북대 이공학영재교육원에 공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발된 학생들은 9월부터 내년 7월까지 총 11개월 동안 대학 실험실에서 연구 활동 체험과 다양한 교육을 받게 된다.

또한 연구 활동 종료 후 프로젝트의 최종 단계로 참여 학생들에게 미래비전 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비전트립(Vision Trip) 참여 기회도 부여된다.

/장은성기자